



소비자 **광장**

고속·시외버스, 휴게소 정차시 사행성 판매 근절되어야

고속버스나 장거리 시외버스를 타다보면 정차하거나 출발하려는 터미널이나 휴게소에서 소위 '경품권'을 통한 사행성 판매를 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런 판매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호기심에 물건을 구입하게 돼 경제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불법 상행위를 하는 악덕업자들은 잘 넘어갈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번호표를 주고 각종 명목을 붙여 시중가의 몇 배나 되는 돈을 받아 바가지지를 씌우는 수법을 쓴다. 직접 본 것만 해도 수없이 많았는데 요즘도 그런 피해 사례를 당했거나 피해를 목격했다는 사례들이 신문, PC통신을 통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소비자보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그리고 입법 추진중인 제조물 책임법을 보면 관련 업체나 업주는 소비자, 즉 여행객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고 관련 자치단체에서는 지도 감독을 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불법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발이 빨라 현장에서 잡아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관련 기관의 방관 혹은 묵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관의 책임 회피는 불법 사행성 강매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터미널 사업주는 여행객의 안전과 쾌적한 여행을 위해 제 조치를 이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법에 운송업체는 승객의 쾌적한 여행을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도 터미널 사업주 또는 운송조합에 위탁사무 형식으로 위임하되 행정적 지도 책임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버스기사 또는 해당 버스회사의 직원이 탑승하여 점검을 하는 중에도 버젓이 들어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앞에서 말했듯이 뒷 돈을 받고 묵인을 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 휴게소 정차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에 운전 기사가 차에 올라타면서 불법 상행위를 하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운송조합에 문의하니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런 불법 행위가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 대도시에선 승객들

이 이미 알아채서 별효과가 없는지 이제는 중소도시로 내려갔고 중소도시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승객이 정신만 잘 차리면 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탑승 승객 역시 소비자이므로 이들의 권리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에 앞서 이러한 사기, 강매 행위가 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업체, 터미널사업자는 법에 명시한대로 철저한 단속을 하고 승객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버스나 터미널 등에서 승차·정차할 때, 여행객들이 탑승 대기할 때 들을 수 있도록 안내 방송 및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이러한 불법 사례·피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하는 여행객의 의식이 필요하며 ▲그에 앞서 관련 행정당국·사법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 및 수사가 이행되어야 한다.

■박용호(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취직 되지 않았는데도 소개비 환불 거절해

영어 학원의 강사로 취직을 하려고 직업 소개소를 찾았다. 경험이 없다는 내 말에 학원 원장은 우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취직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면서 강의 교육을 받으라고 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경험자를 구하기 때문에 나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일단 교육을 받아야 취직하기가 더 쉽다고 했다.

철판에 글씨쓰는 연습도 해야 하고 말하는 법과 요점을 뽑아내는 법,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2주 정도 교육을 받으라는 설명에 어느 정도 수공이 갔다. 나는 철판 글씨를 써 본적도 없는데다 학생들 앞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고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면접을 볼 때도 유리하리란 생각에 등록을 했다.

교육비는 원래 20만원인데 15만원에 해준다고 했다. 그리고 소개비 명목으로 5만원을 더 받아 도합 20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교육 기간이 끝나도 취직이 되지 않았다. 몇 달 동안이나 취직이 되지 않았고 면접도 몇 번밖에 보지 못한터라 초조한 마음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다. 취직 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나같은

소비자 광장은 독자 여러분이 만드는 난입니다. '소비자시대'에 바라는 글이나 소비자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를 담은 수필·제언·만화·만평·사진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된 독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그달치 '소비자시대'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통장계좌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37-700 서울시 서초구 영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정보기획팀 '소비자 광장' 담당자 앞
- 문의 전화 : (02) 3460-3287(임은정)
- PC 통신 : 하이텔 ID pubsobi 천리안 ID cpbdcet
- F A X : 3461-0271

경우는 소개비를 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취직을 시켜주는 대가로 지불한 돈이기 때문에 교육비는 몰라도 소개비는 받아야 한다면서 요구를 하라고 했다.

나는 전화를 걸어 다른 곳에 취직을 했으니 소개비를 환불해 달라고 했다. 원장은 처음에 교육비를 20만원 받아야 했는데 15만원으로 5만원을 깎아 주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분명히 소개비로 5만원을 지불한 것이고 교육비를 깎아준 것뿐이지 소개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영수증을 받아놓은 것도 아니어서 결국 돈을 받지 못하고 말았다.

지나고 나서 혹시 취직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해 학원 측에서 꾸며낸 한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15만원씩 받아도 될 것을 괜히 20만원이라고 하고서 나중에 소개비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5만원을 깎아주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닐까.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꼭 별도의 영수증을 챙기고 취직이 안됐을 경우 소개비를 돌려준다는 다짐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할 것이다.

■강창숙(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유모차 가지고 탔다고 마구 화내는 택시 기사

며칠 전 선배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친구와 친구 아들(7개월), 그리고 나와 남편, 딸아이(5개월)가 함께 택시에 타게 되었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유모차에 태우고 갔었는데 유모차를 접어서 타려고 하자 택시 기사 아저씨가 다짜고짜 화를 내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유모차를 가지고 택시에 올라탔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미 친구와 친구 아들이 먼저 차 안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리지도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 한 후에 우리는 버스로 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다.

나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속으로 이 택시를 고발하고 싶었다. 나는 단지 접을 수 있는 소형 유모차를 가지고 탔을 뿐인데 만약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했을 때 과연 택시를 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택시 기사들의 횡포에 시달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MK 택시처럼 서비스를 강화한 택시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물론 대다수의 친절하고 성실한 택시 기사분들이 많지만 이런 일 하나 때문에 택시에 대한 인상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만다. 장애인이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든, 짐을 많이 든 사람이든 누구나 반겨주는 친절하고 성실한 택시 기사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서유라(대전시 연제구 연산3동)

학원비 6개월·12개월치를 한꺼번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해

학원 수강료를 6개월이나 12개월 단위로 한꺼번에 받는 곳이 있다. 이점에 대해서 참으로 할 말이 많다. 내 동생이나 친구들의 경우 컴퓨터 학원비와 외국어 학원비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했다. 신용카드도 받아주기 때문에 할부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이자 수수료는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도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 만화를 배우기 위해 만화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학원비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야 했다. 돈이 없어서 우선 신용카드로 결제해 할부로 내고 있다.

한달치만 받으면 한달만 나오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으니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한번에 돈을 받는 만큼 학원 시설이나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서 학원비를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돌려준다고 해도 돈을 다시 받으려면 학원과 많은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학원비가 짠 것도 아니고 보통 50만원, 1백만원이 넘는다. 그걸 한 번에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되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학원의 이런 수납 형태는 사라져야 한다. 6개월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고 해도 배우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 두는 경우를 생각해서 융통성 있는 학원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김은숙(인천시 북구 산곡동)